

## 6. 구주가 탄생하심(2011년 8월 7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주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눅2:8~14]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예언대로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군요. 어디까지나 전설이니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구주의 어머니로 선택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나 도덕적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 외에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 조건은 순결한 처녀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혼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혼한 남편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여자로서 마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처녀여야만 하는 조건은 애청자들께서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혼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남자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구주의 신원 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유를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죄가 되었습니다. 정혼한 상태에 있으면 정혼 자가 용납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혼한 처녀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은 구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조건에 딱 맞은 처녀였습니다. 그 정혼한 남자 요셉은 도덕성에 있어서 의로웠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현몽했습니다. 즉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잘 순종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결혼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은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주가 탄생하기 전 700년경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는 다 베들레헴에서 300리 이상 떨어진 먼 곳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그 시대에 300리 길을 여행한다는 말입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가

능성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때맞추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거두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 11장에 토색하는 자로 예언된 왕이 바로 이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토색한다는 말이 바로 사람들의 인두세를 정하여 거두는 것을 뜻하는 예언입니다. 구주가 탄생할 바로 그때에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은 이뿐만 아니지요. 구주가 탄생할 때에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에 발람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한 별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보지 못하던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이 연구하던 이스라엘의 예언서 민수기에 예언한 그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발람은 별이 나타나는 것을 홀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홀은 왕권을 나타내는 막대기입니다. 곧 그 별이 왕이 탄생한 사실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 한 왕이 탄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왕을 찾아 경배하라는 분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나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에 대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왕도에서 왕자 탄생에 대한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적막한 왕도의 모습에 놀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물었던 것입니다. 시민의 들은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놀랐습니다. 왕이 탄생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박사들은 동방에서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성내에 퍼지고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인 헤롯이 이 소동을 인하여 모든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헤롯도 성경의 예언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러온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 예언을 말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2:5,6) 헤롯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주고 아기를 찾거든 반드시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속셈은 달랐지요. 아기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 길을 찾을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녁이 되도록 있었던 것이 확실하지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유대의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청취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메시아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잘 알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 왕이 탄생한 사실을 알리는 별이 뜰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을 듣고도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한 사람도 그 사건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그 표징

이 분명히 나타났고 먼 동방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어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에 무관심하지 않는지요? 예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의 태도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태도가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 별은 박사들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께서 누운 집까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어떤 별일까요? 신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별들을 이리저리 찾으려 그 실상을 알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별들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별들로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특이한 별로 보이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처럼 보이는 천사들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찾아오기 전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가 탄생한 소식을 먼저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밖에 있었다는 것은 겨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주가 탄생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한 말이 유앙겔리온인데,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말이지요.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마태1:21에 밝혀놓았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적어서 읽을 때의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표상적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이름이 예수님께 적용될 때에는 여호와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색이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삼위일체 여호와의 한 위로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3장에 잘 계시하였습니다.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여호와가 구원자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함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요8:23~25,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든 후에 바로 그인 줄 알게 될 것인데, 곧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은 바로 예언된 그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허다한 천군천사들이 기별을 전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대 함창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 계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강보에 싸인 아기가 구유에 누운 것이 표적이라는 말 외에 아기 예수가 계신 집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직 새로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서 찾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구주가 탄생한 소식을 집집마다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면 새 아기가 탄생한 집을 찾았을 것이고, 새 아기가 탄생했다는 대답을 들으면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반문할 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말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별이 박사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구주가 탄생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데, 그들은 박사들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렸고 들에서 양을 치던 민초들이 목자들이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일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과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외칠는지 모를 일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탄식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1:9~11)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분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로 탄생했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의 거처인 마구간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세상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의 세상이 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존귀에 처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때문에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 지구 자체가 짐승의 거처인 마구간과 같은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구주께서 바로 그렇게 된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시편 49:20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을 기다리던 헤롯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태어났는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별까지 나타났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구주를 갓난아기로 있을 때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헤롯을 충동하여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단은 구주가 세상에 오실 통로를 차단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사실은 지난 강론에서 이미 말씀 드렸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도 그런 예입니다. 이런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계12:1~4)

용으로 표상된 사단이 아기를 삼키려고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헤롯을 통하여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박사들의 예물은 가난한 목수 요셉이 애굽 피난생활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다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예언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말한 것인데, 그 사건은 온 인류가 죄의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을 표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38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죄의 세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교회에서 올바른 교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구주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실인이신 사실을 지적합니다. 나사렛과 나실인을 발음이 아주 닮았습니다. 마태는 나실인이라는 말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라는 말이 네체르입니다. 이것도 나사렛이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마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해석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봉사를 시작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요셉의 목공소에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로 알려졌습니다.(막6:3)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이지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갈4:4) 그래서 율법의 요구들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례를 행하셨고(눅2:21) 그리고 산모의 결례일이 찼을 때 40일입니다. 부모들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봉헌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합니다. 그가 한 말은 복음적 예언입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눅2:29~35)

예수는 사람들의 흥하고 패하는 표준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인간의 실상을 바르게 보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올바르게 믿어서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을 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자기 땅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